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

박민희** · 양숙자*** · 지연경****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울증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와 함께 대표적인 정신건강 문제로 꼽힌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이에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할 수 있는데(Kendler et al., 1995),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우울에 있어서 더 취약하다. Jeon(2014)에 따르면 한국의 우울증상 경험률이 여성은 전체의 18.3%, 남성은 9.7%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우울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는 25-44세로, 이 시기 여성의 우울은 결혼생활과 가족문제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Joiner, Coyne, & Blalock, 1999).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우울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다. 이들은 한국의 보통 여성들처럼 결혼생활과 가족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이민 후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등 정신건강에 있어 취약한 요인을 가지고 있다. 결혼과 이민에 대한 적응과정은 정신·심리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잠재적 스트레스 사건으로(Rotenberg, Kutsay, & Venger, 2000), 불안,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 유발을 위협하고 있다(Takeuchi et al., 2007). 실제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미국에 거주하는 멕시코계 이민 여성의 우울연구에서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CES-D) 도구 Radloff, 1977)의 점수 16점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연구대상자의 41.5%가 우울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Vega, Kolody, Valle, & Hough, 1986), 같은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42.3%가 우울로 나타났다(Yang & Kim, 2007).

여성결혼이민자는 결혼을 계기로 자신이 자라온 환경과 다른 문화권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적응을 해야 한다. 또한 결혼 자체도 하나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며, 새로 형성되는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결혼 후 곧 직면하는 출산, 양육 문제 등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Kweon & Park, 2007). 이들은 한국에서 생활하

* 본 연구는 2014년도 원광대학교 교비 지원에 의해 수행됨.

**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대학 간호학부 부교수(교신저자 E-mail: angsj@ewha.ac.kr)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아동학과 초빙교수

• Received: 23 February 2015 • Revised: 17 March 2015 • Accepted: 31 July 2015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Sook Ja Yang

Division of Nursing Science, College of Health Sciences,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120-750, South Korea.
Tel: 82-2-3277-4652 Fax: 82-2-3277-2850 E-mail: yangsj@ewha.ac.kr

면서 언어적 어려움, 문화적 차이, 사회에서의 차별, 경제적 어려움, 남편과 시어머니 등 가족과의 갈등,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Lee et al., 2006; Seol et al., 2005; Seol, Lee, & Cho, 2006). 더욱이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는 아내와 어머니라는 역할과 동시에 대부분 친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 역할을 수행하며, 출신국과 이주국의 정체성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지대에 위치해 있다(Seol et al., 2005).

이처럼 여성결혼이민자가 갖는 스트레스 요인이 매우 다양한데, Park과 Yang (2012)은 국내·외 문헌 고찰과 초점집단인터뷰,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이들의 스트레스 속성을 4가지 요인인 가족경제 스트레스, 양육 및 차별 스트레스, 문화 스트레스, 정서 스트레스로 분류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Chung & Han, 2009; Lim, Oh, & Han, 2009)와 생활사건 스트레스(Park, 2007; Yang & Kim, 2007), 경제적 스트레스(Shin, 2009)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가정폭력(Yang & Kim, 2007)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변인 중의 하나로 밝혀졌다. 그렇지만 기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문화적응 측면과 가족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스트레스 측면을 주요 변수로 살펴본다. 여성결혼이민자가 그 이외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우울을 얼마나 예측하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 문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부부불화 및 자녀양육 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들이 한국생활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생활하며 겪는 우울과 구체적인 스트레스 요인들을 확인하고, 각 스트레스 요인들이 우울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을 밝혀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기초자료로 제공하려고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을 확인하고,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와 우울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 측정도구 개발(Park & Yang, 2012)의 2차 분석 연구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국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이다. 조사 대상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으로 나누어서, 대도시에 해당하는 서울시 4개 구, 중소도시에 해당하는 경기도 1개 시, 농촌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각 1개 군의 보건소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보건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를 편의추출하여 자료수집하였다. 설문조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설문지는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한국어로 제작하였으며, 각 언어의 전문번역사를 통해 번역하고 이를 한국어에 능통한 각 언어의 원어민으로부터 원도구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교정을 받아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중다선형회귀분석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기준으로 예측변인의 수가 13개일 때,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로 설정하여 필요한 표본수는 189명으로 나타나(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 본 연구에서는 최소한의 표본 수 기준을 초과하여 350명을 목표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설문조사를 위해 해당기관에 협조를 얻어, 연구자 또는 연구보조원 1인이 기관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문조사가 시행되었다. 연구보조원에게는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수집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충분히 자료수집 지침을 숙지하고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4개 국어로 번역된 설문지의 배부는 출신 국가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기준으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제공되었다. 다만, 중국 조선족 출신은 한국어 능력 수준이 잘하는 편으로 분류된 경우에만 한국어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며, 자국어로 번역된 설문지가 없는 캄보디아 등 기타 국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에게는 한국어 설문지를 주고 필요시 기관 통역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였다. 총 359부의 설문지가 수집되었고,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37부를 제외한 322부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이에 연구대상자수는 표본 수 산출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에서 승인(IRB No. 2011-12-1)을 받았으며, 모든 연구의 과정에서 윤리적 고려가 이루어졌다.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설문조사요원이 연구의 목적과 과정, 연구를 통해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과 비밀유지가 된다는 점, 개인정보가 보호된다는 점,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연구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4.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8개 문항과 여성결혼이민자 스트레스 측정도구(Park & Yang,

2012)와 우울 측정도구(Radloff, 1977)로 구성되었다.

1) 인구학적 특성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결혼전 국적,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직업, 종교, 한국 거주기간, 한국국적 획득여부, 한국어 능력 등을 조사하였다. 이 중 한국어 능력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개 영역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1점 '매우 서툴다', 2점 '서툰 편이다', 3점 '보통이다', 4점 '잘하는 편이다', 5점 '매우 잘한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개 영역의 한국어 능력을 통합하기 위해 4개 영역에 대해 평균을 내어 3.5를 초과하면 '잘하는편', 2.5초과 3.5이하면 '보통', 2.5이하 '잘못하는편' 세 집단으로 나누어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2) 여성결혼이민자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는 Park과 Yang(2012)이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스트레스 측정도구(Stress Measure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SMFMI)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1개 문항이며, 문화 스트레스요인, 가족경제 스트레스요인, 정서 스트레스요인, 양육 및 차별스트레스요인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화 스트레스요인은 '한국음식은 내 입맛과 맞지 않다', '하고 싶은 말을 한국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답답하다' 등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족경제 스트레스요인은 '친정에 보내기로 한 돈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남편과 시댁식구들은 내가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지 않는다' 등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서 스트레스요인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까봐 불안하다' 등 3개 문항으로 구성, 양육 및 차별 스트레스요인은 '아이의 학습과 숙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나는 사회에서 편견과 차별을 느낀다' 등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은 0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지며, 점수계산은 평균 평점을 사용하여 최저 0점에서 최고 4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심한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

도 계수는 Cronbach' α 값 .903이었으며, 하위요인들의 Cronbach' α 값은 가족경제 스트레스요인 .892, 양육 및 차별 스트레스요인 .852, 문화 스트레스요인 .795, 정서 스트레스요인 .549 이었다. 각 언어별 설문지의 Cronbach' α 값은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설문지가 각각 .904, .902, .868, .881로 나타났다.

3) 우울

본 연구에서는 Radloff (1977)가 개발한 우울 측정도구(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scale)를 사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영문판 원도구를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우울 측정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2주 동안 경험하였던 우울과 관련된 증상들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4개 문항은 긍정문항으로 역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측정은 0점 '거의 드물게', 3점'대부분'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저 0점에서 최고 60점까지 분포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의 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낸다. 도구개발당시 총점이 16점 이상이면 임상적으로 우울함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지역사회 역학연구에서 제시한 우울 기준은 21점 이상이다(Cho & Kim, 1993).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 .80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 값 .906이었다. 각 언어별 설문지의 Cronbach' α 값은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설문지가 각각 .880, .930, .897, .892로 나타났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는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ANOVA)로 분석하였고 Schéffe test를 이용하여 사후검정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와 우울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각 스트레스 요인과 우울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각 스트레스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회귀식의 기본가정인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한 결과, 각각 10 미만(1.016~1.864)와 .1이상(.536~.986)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의 검정통계량은 1.677~1.806으로 기준 값인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의 상관관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 실시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Berry & Feldman, 1985).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322명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를 살펴보면, 베트남이 46.0%로 가장 많았고 중국 33.5%, 필리핀 12.7%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0.54세로 20대가 49.7%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7.6%로 그 뒤를 이었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44.8%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이상이 22.5%이었다,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결혼이민자는 37.1%였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도 56.8%로 나타났다. 한국에 거주기간은 평균 4.14년으로 1~3년이 28.8%로 가장 많았으며 5~10년이 26.8%, 10년 이상 거주한 여성결혼이민자도 7.0%이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여성결혼이민자는 28.9%였으며, 한국어 능력수준은 잘하는 편이 26.6%, 보통이 49.7%, 못하는 편이 23.7%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배우자 교육수준, 직업, 한국거주기간, 한국어능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업이 없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직업이 있는 경우보다 우울정도가 높았고($t=2.210, p=.028$),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3년인 여성결혼이민자가 5~10년 거주한 경우보다 우울정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10년 이상 거주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정도가 5~10년 거

주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정도 보다 유의하게 높았 우울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F=5.722, p=.004)

Table 1. Differences in Depression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N=322)

Variables	n (%)	Depression		t of F	p	Post-Hoc
		Mean	SD			
Country of origin				2.347	.073	
China	108(33.5)	16.55	11.15			
Vietnam	148(46.0)	16.22	9.70			
The Philippines	41(12.7)	20.71	10.04			
Other [*]	25(7.8)	18.40	7.79			
Age (years) (M=30.54, SD=7.20)				.325	.807	
20~29	152(49.7)	16.98	10.59			
30~39	121(37.6)	16.67	10.03			
40~49	29(9.5)	17.00	9.61			
50~59	4(1.3)	21.75	6.13			
Education				1.634	.197	
≤Middle school	103(32.7)	16.84	8.52			
High school	141(44.8)	18.89	11.77			
≥College	71(22.5)					
Household income (10,000 won)				4.758	.001	a<b
<100 ^a	16	21.5	8.91			
100~200 ^b	133	16.99	10.00			
200~300 ^c	78	14.00	7.53			
≥300 ^d	33	16.63	13.45			
Do not know ^e	47	21.27	10.56			
Employment				2.210	.028	
Unemployed	198(62.9)	18.06	10.26			
Employed	117(37.1)	15.43	10.09			
Religion				-1.885	.060	
Having a religion	183(56.8)	18.08	10.04			
No religion	136(42.6)	15.91	10.28			
Duration since immigration (years) (M=4.14, SD=3.45)				2.459	.046	a,b>d, e>d
<1 ^a	45(14.4)	18.49	17.02			
1~3 ^b	90(28.8)	16.51	8.27			
3~5 ^c	72(23.0)	14.69	8.95			
5~10 ^d	84(26.8)	20.27	11.03			
≥10 ^e	22(7.0)					
Korea citizenship				-1.365	.173	
Citizen	92(28.9)	17.87	8.48			
Non-citizen	226(71.1)	17.89	10.48			
Korean language proficiency				5.722	.004	a<b,c
Good ^a	83(26.6)	14.27	9.36			
Fair ^b	155(49.7)	17.76	10.87			
Poor ^c	74(23.7)	19.53	9.58			

Note: Missing data were excluded.

* Other includes cambodia(10) and unknown(15).

다(F=2.459, p=.046). 한국어 능력 수준이 '보통'과

'못하는 편'에 속하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잘하는 편'보다

(Table 1).

2.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우울정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문화 스트레스가 1.92점으로 가장 높았고, 양육 및 차별 스트레스가 1.34점, 가족경제 스트레스가 1.27점, 정서 스트레스가 0.81점으로 나타났으며, 각 문항의 평균값을 낸 총 스트레스 점수는 1.34점으로 최대 3점이었다. 우울점수는 평균 17.07점, 0점에서 최대 50점까지의 분포 및 표준편차가 10.09인 큰 편으로 나타났다. CES-D 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을 16점으로 보았을 때 52.5%가, 21점을 기준점으로 보았을 때 33.5%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우울로 분류되었다(Table 2).

3. 스트레스 요인과 우울과의 상관관계

스트레스 각 요인 및 총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총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상관관계 정도는 Pearson's r 값이 .525이었으며, 각 요인별로

$p=.001$), 양육 및 차별 스트레스($r=.188$, $p<.001$) 순으로 상관 정도를 보였다.

4.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영향을 통제할 상태에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우울 점수의 차이를 보인 가구소득, 직업, 거주기간, 한국어 능력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각 스트레스 요인을 하나씩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만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우울을 설명하는 정도는 5.8%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각각의 스트레스요인을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 가족경제 스트레스, 정서 스트레스, 양육 및 차별 스트레스, 문화 스트레스는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경제 스트레스를

Table 2. Level of Stress Factors and Depressio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N=322)

Variables	n or %	Min.	Max.	Mean	SD
Total Stres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322	.00	3.00	1.34	0.65
Cultural stress	322	.00	4.00	1.92	0.98
Household economic stress	322	.00	4.00	1.27	0.86
Emotional stress	322	.00	3.67	0.81	0.71
Parenting and discrimination stress	322	.00	4.00	1.34	1.01
Depression (CES-D)	322	.00	50.00	17.07	10.09
≥ 16	52.5				
≥ 21	33.5				

* CES-D =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 Depression scale.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tress Factors and Depressio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N=322)

Variables	Depression	
	r	p
Total stres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525	<.001
Cultural stress	.309	<.001
Household economic stress	.573	<.001
Emotional stress	.297	<.001
Parenting and discrimination stress	.188	<.001

는 가족경제 스트레스($r=.573$, $p<.001$), 문화 스트레스($r=.309$, $p<.001$), 정서 스트레스($r=.297$,

Table 4. Effect of Stress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N=322)

Model	B	SE	β	t	p	Tolerance	Collinearity statistics			
							Variance Inflation Factor	R ²	Adj. R ²	F(p)
Model 1										
(Constant)	26.264	2.889		9.092	<.001		.073	.058	4.807(<.001)	1.741
Household income	-.916	.651	-.087	-1.408	.160	.986				
Employment*	-1.460	1.367	-.071	-1.068	.287	.852				
Time since immigration	.039	.017	.162	2.338	.020	.788				
Korean language proficiency	-.715	.207	-.243	-3.455	.001	.770				
Model 2										
(Constant)	16.276	3.730		4.363	<.001		.132	.114	7.378(<.001)	1.738
Household income	-.811	.631	-.077	-1.284	.200	.984				
Employment*	-.709	1.339	-.035	-.529	.597	.835				
Time since immigration	.047	.016	.199	2.927	.004	.774				
Korean language proficiency	-.429	.213	-.146	-2.019	.045	.685				
Cultural stress	2.886	.712	.278	4.055	<.001	.761				
Model 3										
(Constant)	11.950	2.821		4.236	<.001		.345	.331	25.565(<.001)	1.804
Household income	-.170	.563	-.016	-.308	.758	.968				
Employment*	-2.018	1.153	-.099	-1.750	.081	.850				
Time since immigration	.029	.014	.120	2.052	.041	.784				
Korean language proficiency	-.287	.179	-.098	-1.601	.111	.726				
Household economic stress	6.422	.640	.542	10.037	<.001	.925				
Model 4										
(Constant)	21.018	3.012		6.977	<.001		.145	.127	8.244(<.001)	1.736
Household income	-.722	.628	-.069	-1.151	.251	.981				
Employment*	-.632	1.328	-.031	-.475	.635	.836				
Time since immigration	.034	.016	.141	2.098	.037	.784				
Korean language proficiency	-.592	.201	-.201	-2.943	.004	.756				
Emotional stress	3.976	.879	.276	4.523	<.001	.944				

Table 4. Effect of Stress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Continued) (N = 322)

Model	B	SE	β	t	p	Tolerance	Variance Inflation Factor	Collinearity statistics			
								R ²	Adj. R ²	F(p)	Durbin-Watson
Model 5											
(Constant)	21.779	2.999		7.263	<.001			.134	.117	7.547(<.001)	1.677
Household income	-.773	.631	-.074	-1.226	.221	.983	1.018				
Employment*	-.441	1.346	-.022	-.327	.744	.823	1.214				
Time since immigration	.020	.017	.085	1.221	.223	.732	1.366				
Korean language proficiency	-.638	.201	-.216	-3.168	.002	.763	1.310				
Parenting and discrimination stress	2.650	.638	.260	4.151	<.001	.905	1.105				
Model 6											
(Constant)	11.830	3.244		3.647	<.001			.370	.349	17.627(<.001)	1.806
Household income	-.100	.546	-.010	-.183	.855	.965	1.036				
Employment*	-1.560	1.177	-.076	-1.325	.186	.793	1.260				
Time since immigration	.014	.015	.059	.959	.338	.685	1.459				
Korean language proficiency	-.317	.183	-.108	-1.737	.084	.682	1.467				
Cultural stress	-.873	.727	-.084	-1.201	.231	.536	1.864				
Household economic stress	6.438	.770	.543	8.358	<.001	.621	1.610				
Emotional stress	.206	.926	.014	.223	.824	.635	1.574				
Parenting and discrimination stress	1.673	.641	.164	2.608	.010	.660	1.514				

* Dummy variable (0 = Unemployed, 1 = Employed)

투입한 모형의 설명력이 33.1%로 가장 높았으며, 정서 스트레스를 투입하였을 때의 모형의 설명력은 12.7%, 양육 및 차별 스트레스를 투입하였을 때의 모형의 설명력은 11.7%, 문화 스트레스를 투입하였을 때 모형의 설명력은 11.4%로 나타났다. 위의 분석에서 유의미한 4개의 스트레스 요인 모두를 투입한 모형의 설명력은 34.9%로 나타났으며 이때 가족경제스트레스($\beta = .543, p < .001$)와 양육 및 차별 스트레스($\beta = .164, p < .01$)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우울점수는 우리나라 지역사회 역할 연구에서 1차 선별용으로 제시한 CES-D 21점을 기준(Cho & Kim, 1993)으로 한 결과, 33.5%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우울증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서울지역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CES-D 도구로 우울을 조사한, Yang과 Kim (2007)의 연구에서 26.9%가 우울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진 것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 여성의 우울 수준은 CES-D 도구를 이용한 조사는 아니었지만, Jeon (2014)의 '한국 성인의 성별 정신건강 수준 차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영양조사의 2007~2009년 우울 증상 경험률을 조사한 결과 여성은 전체의 18.3%가 경도 이상 우울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는 한국 여성보다 우울을 경험하는 비율이 많았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본국을 떠나 타 문화권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하므로, 결혼뿐 아니라 문화적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그 결과 임상적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심각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이어지므로(Berry, 1997; Lim et al., 2009; Yang & Kim, 2007)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가구소득, 직업유무, 한국거주기간, 한국어 능력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구소득과 직업유무는 경제적 요인으로, Byun (2011)의 연구에 따르면 월평균 가

계수입이 낮을수록, 전업주부의 경우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남편과 결혼을 선택하는데 경제적 혜택을 얻으려는 동기로 작용하게 되는데(Seol et al., 2005), 경제적인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지는 결과라 사료되며, 저 소득층은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게 되고 그 스트레스는 우울증과 연결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House, 2001)

본 연구에서는 한국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을 제외하고는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yun (2011)은 우울에 의미 있는 일반적 특성 영향요인은 연령과 거주기간이라 하였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도 한국에 이주한지 3년 미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우울이 높다는 점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또한 10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수준이 높은 부분은 연령변수와의 교호작용이라고 사료되지만 정확한 추론을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언어능력은 이민자의 우울을 예측하는 변수 중 하나이다. 언어능력은 성공적인 이민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Berry, 1997), 언어능력이 완전하지 않다면 가족과의 의사소통과 이주국에서의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7).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각각의 스트레스요인을 순서대로 우울모형에 투입하여 분석한 후, 4개의 스트레스요인을 모두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문화 스트레스만 투입한 모형은 우울을 11.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스트레스는 식생활의 차이, 한국어 표현의 어려움, 언어문제로 일상생활의 제한을 포함하는 등 이주 초기에 겪는 문화적응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Han, 2006). 미국거주 멕시코계 여성이민자를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한 여성이민자의 우울경험률이 높았다(Salgado de Snyder, 1987). 이와 같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우울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ovey & Magana, 2000; Lim et al., 2009).

양육 및 차별 스트레스는 우울을 11.7% 설명하였는데, 여성결혼이민자 중 양육 스트레스 고위험에 속하는 경우가 30%로 조사될 정도로(Seo, Kim, & Kim, 2008), 이들의 양육 스트레스는 우울을 예측하는 주요 요소이다. 사회적 차별에 관한 스트레스도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는 가족 이외의 사회적 관계는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덜 느끼지만(Yang, 2008),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가 시작되고 자녀에 대한 사회의 차별적인 시선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정서 스트레스는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지, 혼혈인 자녀가 차별받지는 않을까 하는 남편, 자녀에 대한 불안정한 정서를 나타내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정서 스트레스요인만 투입된 모형에서 우울을 12.7% 설명하였다. Yang (2008)의 연구에 의하면 남편이 자신을 싫어해서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한 불안이 한국에서의 삶을 위협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이나 신분결정이 실질적으로 남편에 좌우되어, 이들의 정서적 불안감은 남편과 연관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족경제 스트레스요인을 투입한 모형은 우울을 33.1% 설명함으로써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을 예측하는 스트레스 변인 중 가족생활 스트레스와 경제적 스트레스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Park & Yang, 2012; Yang & Kim, 2007). 이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의 가부장적인 가족구조 속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처해 있어, 시댁식구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받기 쉽다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Yang, 2008). 더군다나 경제적인 자유 재량권도 갖기 어려워(Han, 2006), 결혼 후 친정에 대한 지원 등 경제적인 혜택을 얻으리라는 기대 속에 결혼을 하지만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 점도 우울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Seol et al., 2005). 이러한 점은 Choi (2011)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 연구에서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경제적 스트레스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 중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로 나타난 점과 일맥상통한다

고 볼 수 있다.

4개의 스트레스 요인 모두를 투입한 모형의 설명력은 34.9%로 나타났는데 가족경제 스트레스와 양육 및 차별 스트레스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 가족경제 스트레스만 투입한 모형의 우울 설명력 33.1%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관계나 경제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요인이 우울을 가장 크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Yang과 Kim (2007)의 연구에서는 가족생활, 문화적응, 가정폭력 유무 등 다양한 스트레스 변인이 우울을 38.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트레스가 우울을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지만, 스트레스 요인별 우울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지는 못한 결과이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을 설명하는 각각의 스트레스 요인별 영향 정도를 파악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의 정신적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어떤 부분에 우선적으로 중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해주고 있다.

각각의 스트레스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비교해보면, 가족경제 스트레스요인이 33.1%로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그 다음으로 정서 스트레스요인, 양육 및 차별 스트레스요인, 문화 스트레스요인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가 배우자나 시댁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경제적 상황에서 갈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을 중재할 때 개별상담 뿐만 아니라 가족 상담을 우선적으로 하여 가족 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지원해야 할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이 제공되기 보다는 가족 구성원과 함께 신뢰하는 가족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계향상 프로그램 등의 실시가 필요하다.

또한,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슷한 정서 스트레스, 양육 및 차별 스트레스, 문화 스트레스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의 문제 진단을 통해 맞춤형 상담과 필요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을 설명하는 각각의 스트레스 요인의 차이는, 이들의 정신적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어떤 부분에 우선적으로 중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해주고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 수준을 알아 보고,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 수준은 CES-D 21점 이상이 33.5%이었으며, 가구소득이 낮고, 직업이 없으며, 거주기간이 짧고, 한국어 능력이 낮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았다. 우울을 설명하는 스트레스를 각각 살펴보았을 때 가족경제 스트레스요인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 정서, 문화, 양육 및 차별 스트레스요인 순으로 높았다. 이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감소, 정신건강 증진방안으로 가족경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지원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가족경제 스트레스의 내용인 시댁식구와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 경제적 갈등 등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가족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며 경제적 참여를 원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마련도 시급하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해 우울 수준이 높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특정한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조사와 고찰이 필요하며, 나아가 개개의 고유한 스트레스 요인에 따라 맞춤형 정신건강 지원 방안 마련을 제언한다. 뿐만 아니라, 추후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과 스트레스를 완충시키는 요인들을 조사하여, 우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의 마련도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는데 우선적으로 중재가 시도되어야 할 스트레스 요인이 가족경제측면이라는 점을 밝혔지만 연구결과의 해석에 있어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우울과의 관련성을 파악한 연구가 없어,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정신적 취약성, 사회적 지지체계, 스트레스 대처수준 등 여러 결정요인을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과를 도출해 해석의 제한이 있다. 셋째, 자국어로 번역된 설문지가 없는 캄보디아 등 기타국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어 설문지를 제공하고 필요시 기관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통역과정에서 도구와

각 문항이 의도한 개념이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References

- Berry, J. W.(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68. doi: 10.1111/j.1464-0597.1997.tb01087.x
- Berry, W. D. & Feldman, S. (1985). *Multiple regression in practice: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Thousand Oaks, CA: Sage.
- Byun, S. W. (2011). Research on depression in married immigrant women: Trend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Rural Health Nursing*, 6(2), 69-77.
- Chung, K. S. & Han, J. E. (2009).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2(2), 87-114.
- Cho, M. J. & Kim, K. H. (1993). Diagnostic validity of the CES-D(Korean Version) in the assessment of DSM-III-R major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2(3), 381-399.
- Choi, J. H. (2011). A Study of stress and family strength of im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6(4), 29-46.
- Faul, F., Erdfelder, E., Lang, A. G., & Buchner, A.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 Han, G. S. (2006). Family life and cultural encounter of foreign wives in rural area. *Korean Society and Cultural Anthropology*, 39(1), 195-243.
- House, J. S.(2001). Understanding social factors

- and inequalities in health: 20th Century prospec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3, 125-142. <http://www.jstor.org/stable/3090192>
- Hovey, J. D. & Magaña, C. (2000). Acculturative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 among Mexican immigrant farmworkers in the midwest United States. *Journal of Immigrant Health*, 2(3), 119-131. doi: 10.1023/A:1009556802759
- Jeon, J. A. (2014). Gender differences in mental health status of Korean adults. *Health and Welfare Forum*, 4, 17-26.
- Joiner, T., Coyne, J. C., & Blalock, J. (1999). On the interpersonal nature of depression: overview and synthesis. In T. Joiner & J. C. Coyne (Eds.), *The interactional nature of depression* (pp. 3 - 1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endler, K. S., Kessler, R. C., Walters, E. E., MacLean, C., Neale, M. C., Heath, A. C., & Eaves, L. J. (1995). Stressful life events, genetic liability, and onset of an episode of major depression in wome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2(6), 833-842. <http://dx.doi.org/10.1176/ajp.152.6.833>
- Kim, O. S. (2007). Focusing on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support: Mental health of immigrant women in rural communiti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2(3), 47-73.
- Kweon, G. Y. & Park, K. W. (2007). A Study on influence factors to the mental health of foreign wives. *Social Research*, 14, 187-219.
- Lee, S. H., Moon, M. H., Choi, Y. S., Lee, S. J., Jung, H. N., & Woo, H. K. (2006). *Settlement Support Plan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Rural area*. Report of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 Lim, S. J., Oh, S. S., & Han, G. S. (2009). Predictors of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foreign wives through marriage migrat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Women*, 14(4), 515-528.
- Park, E. J. (2007). *Intermarried immigrant women's acculturation, stress, and psychological heal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University, Chungnam.
- Park, M. H. & Yang, S. J. (2012). Development of measurement of stress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 518 - 531.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doi: 10.1177/014662167700100306
- Rotenberg, V., Kutsay, S., & Venger, A. (2000). The Subjective estimation of integration into a new society and the level of distress. *Stress and Health*, 16(2), 117-123.
- Salgado de Snyder, V. N. (1987). Factors associated with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among married Mexican immigrant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1(4), 475-488. doi: 10.1007/BF00288163
- Seo, H. L., Kim, K. E., & Kim, Y. H. (2008). A Study of the factors impacting parenting stress of married Vietnamese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3(3), 121-143.
- Seol, D. H., Kim, Y. T., Kim, H. M., Yoon, H. S., Lee, H. K., Lim, K. T., Chung, K. S., Joo, Y. S., & Han, G. S. (2005). *Survey of Immigrant Women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and Health and Welfare Policy Support Plan*. Report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Seol, D. H., Lee, H. K., & Cho, S. N. (2006). *Marriage-Based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in Korea: Current Status and Policy Plan*. Report of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Shin, K. A. (2009). *A study on the economic stress, self-esteem and depression of women immigrants married to Korean 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Takeuchi, D. T., Zane, N., Hong, S., Chae, D. H., Gong, F., Gee, G. C., Walton, E., Sue, S., & Alegria, M. (2007). Immigration related factors and mental disorders among Asian American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7*(1), 84-90. doi: 10.2105/AJPH.2006.088401
- Vega, W. A., Kolody, B., Valle, R., & Hough, R. (1986). Depressive symptoms and their correlates among immigrant Mexican women in the United States. *Social Science & Medicine, 22*(6), 645-652. doi:10.1016/0277-9536(86)90037-7
- Yang, O. K. & Kim, Y. S. (2007). A Study on the effects of depressiveness among foreign wives through marriage migration. *The Korean Academy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26*, 79-110.
- Yang, S. M. (2008). *A Study on multicultural counseling in Korean situation based on the enculturative stressors, stress responses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rural area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Effects of Multiple Stress Factors on Depression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Park, Min Hee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Wonkwang University)

Yang, Sook Ja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Science, College of Health Sciences, Ewha Womans University)

Chee, Yeon Kyung (Professor of the Practice,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levels of multiple stress factors and depression,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stress factors on depression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Methods:** Participants were 322 female marriage immigrants currently residing in Korea, who migrated from China, Vietnam, the Philippines, and other Asian countries. Stres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was measured on the SMFMI (Stress Measure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consisting of 21 items in four factors (cultural, household economic, emotional, and parenting and discrimination stress). CES-D was used to assess depression among marriage immigrant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with Scheffé's post hoc tests, and multiple regressions were performed for data analyses. **Results:** The average score for stress was 1.34 (SD=.98, theoretical range: 0-4) and the average score for depression was 17.07 (SD=10.09) in these female marriage immigrants. Adjusting for household income, employment status, duration since immigration, and Korean language proficiency, household economic stress ($p<.001$) was identified as the strongest predictor in explaining depressio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Adjusted $R^2=.331$). **Conclusion:** Health care professionals should prioritize intervention strategies to alleviate household economic stress for mental health promotion in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Key words : Immigrants, Women, Depression, Stres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Wonkwang University' Research Fund in 2014.*